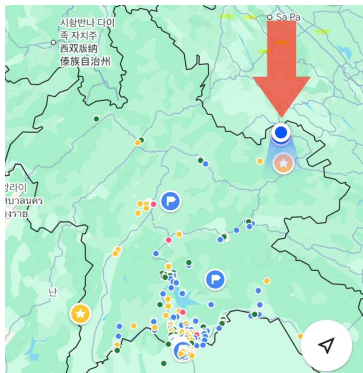


후아판, 천개의 머리!

지난 5월 6일-10일까지 라오스와 베트남 접경지역에 위치한 후아판도(Houaphan Province)에 다녀왔습니다. ‘후아판’은 ‘천개의 머리(산봉우리)’라는 뜻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라오스 18개 지역 중 고산지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지난 해 후아판도 교육청의 제안으로 실시한 ‘1차 보건교사 역량강화 훈련’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던 까닭에 올 해 두 번째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대상은 옛군(아래 지도의 빨간 화살표)에 있는 10개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들 11명이었으며, 현지 의사 두 분이 보건교사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내용(하임리히법 및 CPR, 외상처치-골절 시 부목 고정 및 소독방법, Dengue 및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식별)과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옛군에 총 77개의 마을에 64개의 초등학교, 14개의 중학교, 4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의 보건교사들도 이 훈련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옛군의 위치(라오스-베트남 접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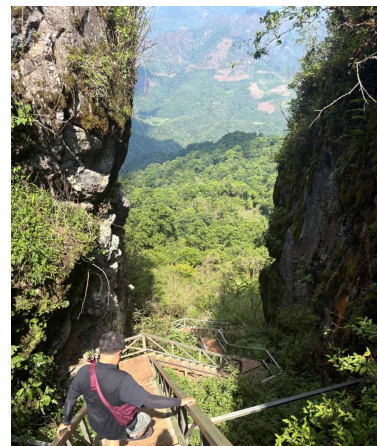


CPR 수업

천개의 계단에 오르다.

후아판 싘느아군(Xamnuat district)에는 천 여 개의 계단을 올라야만 정상에 이를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바로 ‘신성한 산’이란 의미의 ‘파티산(Pha Thi Mt.)’입니다.

이 산은 해발 약 1,700미터의 험준한 석회암 절벽으로 사면이 수직에 가까워 지상에서의 공격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 산의 정상에는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절벽 위에 건설한 ‘리마 사이트 85’라는 레이더 기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격렬했던 1966년, 미 공군은 이곳에 하노이를 포함한 북베트남 전역과 호치민 루트(Ho Chi Minh Trail)를 감시하고 미군 폭격기의 정밀 유도를 돕기 위해 최신예 전술 항법 레이더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레이더기지로 인해 북베



트남의 피해가 커지자 북베트남군은 이 난공불락의 기지를 점령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였는데, 이들은 맨손으로 절벽을 올라가 기습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전투로 미공군 요원 19명중 12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12명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통하여 현재까지 총 다섯 구를 발굴하였으며, 남아있는 7명의 실종자를 찾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접경지역에 자리한 후아판 곳곳에는 끔찍했던 베트남전쟁의 아픔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전쟁 당시 투하된 폭탄들의 일부는 불발탄으로 남아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미 장애인이 된 불발탄 피해자들은 그 고통을 온 몸으로 이겨내며 오늘도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쟁이 끝난 지 약 50년이 지났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해주시고, 그 아픔을 온전히 치료해주실 수 유일한 분인 오스님을 만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주십시오.

학생이 될 것인가? 신부가 될 것인가?

후아판 위앙싸이군(Viangxai district)에 있는 소수민족학교에는 현재 52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중 남학생은 346명, 여학생은 174명입니다. 일반학교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50:50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학교의 여학생 수가 월등히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조혼 풍습 때문입니다.



위앙싸이 소수민족학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고산지역 출신의 학생들 중 몽족, 끄무족 여학생들은 15-16세가 되면 결혼을 하며, 결혼에 이은 임신과 출산 때문에 여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배움을 통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 여학생들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입니다. 학생으로 학업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의 바람대로 결혼을 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 때문에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평 교장 선생님의 제안을 따라 장학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 매달 가정 형편이 어려운 4명의 여학생들을 선발해 1인당 \$40-50씩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이 장학금 사역이 여학생들의 학교 이탈율을 줄이고, 졸업율을 상향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소액의 장학금이지만 여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푸른 꿈을 꾸게 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니다. 앞으로도 이 장학금 사역이 지속되어 결혼 대신 학업을 선택하는 여학생들이 많아지고, 이 장학금으로 말미암아 라오스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두 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딘디유치원 23회 졸업식

지난 5월 22일 딘디유치원 제 23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4-5년 동안 딘디유치원에서 함께 자라고 배웠던 어린 학생들 19명(여학생 12명, 남학생 7명)은 이제 유치원 과정을 마치고, 새학기를 시작하는 오는 9월에 딘디초등학교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23회 딘디유치원 졸업생

지난 2002년에 문을 연 딘디유치원이 벌써 23번째 졸업생을 배출하였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그동안 배출한 졸업생들이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 라오스의 미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딘디유치원을 졸업한 에이미(Amy)라는 여학생은 현재 성균관대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서 1년에 2-3명을 선발해 한국의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을 받으며 장차 라오스를 섬길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미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미 졸업사진



에이미(중앙)와 어머니

드디어 초등학교 허가를 받았습니다.

2002년에 유치원으로 시작한 딘디학교가 드디어 초등학교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초등학교 교실 5개를 확보했지만 교실의 크기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1차 심사에서는 불합격 통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의 인원을 제한해서 받기로 하였고, 결국 2차 심사에서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두 손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해 라오스에는 빠른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점차 무더워지는 이 때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5월 26일

우기가 시작된 라오스에서...

차명열,이순아 올림

※ 2026.6.12-8.11 한국 방문 기간 연락처 : 010-3204-7103

※ 카톡 아이디: dindee17

아림 제목

1. 딘디초등학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주시고, 지난 24년간 신실하게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딘디학교가 라오스의 미래를 감당할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학교로 더욱 더 값지게 쓰임 받게 하소서.
2. 후아판 학교보건교사훈련과 소수민족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지원받는 여학생들이 큰 비전을 품는 믿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3. 수련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6월 12일-8월 11일). 안전하고 복된 여행이 되게 하시며, 이 기간 라오스 사역장에 어려운 일 없도록 지켜주소서.
4. 라오스 지역연구회, 인도차이나 지역연구회 사역을 통해 라오스와 인도차이나가 더욱 효과적으로 알려지며 이 지역을 위해 증보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5. 두 딸(차안송, 차안미)이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어 주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며,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허락하소서.